

강론 ...

정작 고향서 외면당하는 예수님



양재식 신부
(삼천동 성당 보좌)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고향 방문을 인간적으로 조심스레 접근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선포는 다른 바이사 이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권위, 하느님의 아들로써 그 자체로 풍기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 역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보기위해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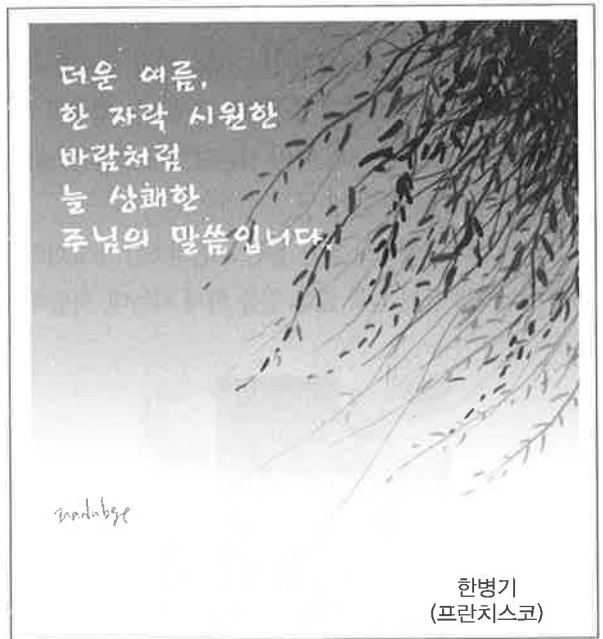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다음에 복음선포할 곳을 고향인 나자렛으로 정하시고 그 곳에서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보여 주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향 나자렛 사람들은 그동안의 군중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릴적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에 머물러 버립니다. 당시의 목수는 나무만 취급하여 멋있는 가구나 집을 만드는 장인이라기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잡다한 것까지 만드는 기술공으로 바라보았고 그 아들이 왔다는 것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놀랐지만 고향에서는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님께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셨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표현입니다. ‘어찌 하느님의 아들인 나의 가르침과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 라는 예수님의 의문을 드러냅니다.

고향에서의 이 일로 예수님께서서는 한층 더 하느님의 아들로 성장하십니다.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지만 자신의 약점인 약한 몸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더욱더 낮아지셔서 자신을 내어주는 성체성사의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버지의 힘을 드러내십니다.

숲머리 생각



한병기
(프란치스코)

성 보나벤투라(1221-1274)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교회에서 '천사적 기쁨'의 박사로 불리는 그는 이탈리아의 투스카니 지방 바뇨레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성 프란치스코의 감탄의 말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오, 보나 벤투라!' - '오, 복된 행운이여!' 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 22세 때에 당시 유럽에 영향을 주고 있던 프란치스코회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는 파리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는 '프란치스코회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섭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파리의 대학에서 절친한 친구 하나를 만나는데, 그가 토마스 아퀴나스이다. 교회의 역사에 별처럼 빛나는 두 위대한 교회의 학자가 된 두 사람은 친밀한 우정뿐만이 아니라 박사학위도 같이 받게 된다.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불멸의 '신학대전(神學大典)'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도미니코 수도회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편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학문적 기틀을 세운다.

후에 누군가가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십자가'라고 대답하는데, 그는 자신의 학문에 대하여 '기도의 연속' 혹은 '준비하는 기도' 라고 생각했다. 그가 위대한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행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의 나이 서른여섯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총장이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동안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제2의 창설자로 불릴 만큼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수

도회의 일치에 관한 일이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의 가난의 정신을 극도로 엄격하게 지키려는 영적인 그룹과, 가난을 보다 느슨하게 현실적으로 지키면서 제도를 중요시하는 그룹과의 갈등이었다. 이 두 그룹들 사이에서 보나벤투라는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요청한다.

그는 총장이었기에 신학자인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권의 중요한 책을 저술하는데, 특히 '하느님께로의 마음의 여행'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이 책에서 프란치스코의 체험을 철학적인 용어들로 해석한다. 특별히 창조된 세상의 관상으로부터 영적인 질서의 깊은 관상으로까지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의 신비적 일치의 목적을 향해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는 영혼의 여행길을 궤적(軌跡)한다.

그는 겸손과 자비의 모범으로 불리는데, 교황으로부터 제의받은 요크 지방의 대주교 자리도 겸허히 사양한다. 후일 다른 교황으로부터 '알바노의 추기경'이라는 타이틀만은 받아주기를 명받기도 한다. 우리는 그를 겸손, 자비, 기도, 신학, 십자가의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말했다. "수도자의 완성은 완덕의 방법들로 보통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작은 방법들로 실천하는 꾸준한 충실성은 위대하고 영웅적인 덕행을 만듭니다."



“수도자의 완성은 완덕의 방법들로 보통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작은 방법들로 실천하는 꾸준한 충실성은 위대하고 영웅적인 덕행을 만듭니다.”

부모노릇 교사노릇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대략 세 종류가 눈에 보인다. 이것은 물론 요즘 그렇다는 것이지 십년 또는 이삼십년 전과는 아마도 다를 것이다.

그 하나는, 공부에 몰두하는 유형인데, 그 공부라는 것이 깊이가 없어보여서

좀 안타깝다. 수능시험이 생긴 이래로 공부가 겉멋만 내도록 됐기 때문일까. 책도 읽지 않고 생각도 전보다 깊이가 없어도 문제가 풀린다. 이 유형의 학생들이 즐겨 보는 '양서'는 주로 '해리포터'나 '다빈치코드' 같은 것들이다.

그 둘은 주로 '논' 아이들인데, 논다는 것은 컴퓨터 오락 같은데 빠져 지내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대단히 예민한 감각파들로서 연예나 스포츠 방면에도 매우 해박하다. 복도에서 교사와 마주치면 슬쩍 비웃음을 날리며 대강 지나가는 스타일이다.

또 하나는, 주로 잠만 자는 아이들로서 도대체 왜 줄



곧 잠만 자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저런 아이들의 부모는 저런 아이들을 도대체 왜 데리고 사는 것일까 싶을 정도로 절망감을 준다.

다들 귀한 집 아이들이지만 교사 입장으로는 어쨌든 잘 가르쳐야 할 제자들

이어서 하나하나가 내일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젊은이들로 키워내고 싶다. 문제는 그들을 물가에 끌어갈 수는 있는데 물은 제가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늘 괴로운 것은 점수 높이도록 돕는 것 말고도 교사는 학생들의 사람됨을 더 높은 데로 끌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점은 가정에서도 별로 요즘은 힘을 안 쓰고 살아가고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컴퓨터가 부모노릇도 하고 교사에 친구에 형제노릇까지 다 하고 있어 놀라울 뿐이다.

정인섭(안드레아)

입당송 시편 48(47), 10-11 참조

제1독서 예제 2, 2-5

화답송 시편 123(122), 1-2, 7, 2바, 3-4 (◎ 2바)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저희의 눈이 주님을 우러르나이다.

○ 하늘에 좌정하신 분, 주님께 저의 눈을 드나이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제 상전의 손을 향하듯, 주님을 우러르나이다.◎

○ 뉘중의 눈이 제 여주인의 손을 향하듯,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그렇게 저희의 눈이 주님 저희 하느님을 우러르나이다.◎

○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

소서. 저희가 멀지만 실컷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실컷 받았나이다.◎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저희의 눈이 주님을 우러르나이다.◎

제2독서 2코린 12, 7-10

복음 환호송 루카 4, 18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도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마르 6, 1-6

영성체송 시편 34(33), 9



● 외국인 노동자 필리핀 공동체 농구대회



교구 사회사목국 외국인 노동사목(담당=박동진 신부)주관으로 지난 6월 4일, 11일, 18일(주일)에 익산대학 농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필리핀 공동체 농구대회 예선전과 25일(주일)에는 합열 올림픽스포츠 센터에서 결승전이 치러졌다.

농구대회는 익산과 군산 그리고 전주에서 참가한 4개팀

이 출전했고 군산의 피노이팀이 우승하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필리핀 공동체의 친교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고 더불어 노동자들의 심신의 활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영수 기자

본당 주요소식 미리보기

◆마동 성당

제2회 본당 가족캠프 7월 29일(토)~30일(주일)

◆장수 성당

초중고 여름신앙학교

(교회 안에서 배우는 문화유적답사)

7월 28일(금) 문경새재 및 연풍성지

군산 지구 포콜라레 운동(교회일치운동) 소개모임



군산 지구 포콜라레 회원들은 지난 7월 1일(토) 군산대학에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포콜라레 운동 소개모임을 가졌다. 1943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에서 끼아라 루빅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183개국에 전해진 포콜라레 모임은 '모든 것에 앞서 서로 사랑하자'는 목표 아래 교파나 종교를 초월하여 세워진 국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다. 한국에는 67년 소개되었으며, 회원들은 사랑과 일치를 각자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였던 경험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성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종교와 교파를 초월하여 군산지역 사제, 목사,

천주교·개신교 신자들이 함께한 모임은 포콜라레 영성에 대한 소개와 생활말씀나누기, 사제·목사의 격려와 축복기도로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모든 것에 앞서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체험을 나누며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7월 생활말씀('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이에게,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다.'-시편 45,18-)을 삶속에서 잘 실천해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였다.

유종환 신부(월명동)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며 "사랑으로 초교파적인 하나님의 도시, 복음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하였다. 정민 목사(군산 새길교회)와 이인구 목사(군산 성원교회)는 군산 포콜라레 모임이 기독교 사회 일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을 축원하며 기도했다. 이후 차 나눔시간과 군산 포콜라레 후속 정기모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오안라, 김영수 기자

서 이 비 인 후 과

호성동 유원아파트 후문 앞

서수영(요셉)/백지은(요세피나)
☎ 242-5050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학 약국

(전북대병원 신정문 앞)

약학박사: 김웅기(베드로)

☎(063)275-5700
FAX. (063)275-5760

가톨릭 학생들을 위한 뉴질랜드 현지학교 체험

가격: 275만원(항공권 별도)
기간: 7월 22일~8월 19일까지
대상: 초,중,고생
주최: EDUCARE, 더니든 north교구
문의: 은 이삭(이사악) 011-9476-2421
www.educare-si.net

서울방사선과 MRI센터

MRI촬영(전신), C-T촬영(전신)
X-Ray 특수촬영 및 투시
킬라 초음파 검사, 유방 촬영

원장: 방사선과 전문의 박인숙(나타시아)

원장: 방사선과 전문의 정진영

☎(063)278-1312~3

새롬 리모델링

리모델링/싱크대 제조 전문업체

김영대(가브리엘)

문의: 275-9236~7

011-294-6471

대창항문병 전문병원 장문외과

치질·변비·유방크리닉

전문 최 성 앙(루카)

전문 안 해 선(사도요한)

전문 이 철 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063)834-6000
익산 영동동 육교 밑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박선재(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젼인아트

전진아(실비아)

부부국가지역보석감사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사사

☎(063)462-7777 / 018-648-7777



쌀은 민족의 생명이며 나라의 주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로 우리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농민주일'을 제
정한 지 열한 해를 맞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제11회 농민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농민들이 처
한 상황은 절박하기만 합니
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농
촌 인구는 급격히 노령화해
가고 있으며 농민들의 경제
적 어려움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
한 현실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그 소중함은 시장의 원
리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내포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민들이 '쌀은 민족의
생명이며 나라의 주권'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벼
농사가 단순히 경제적 재화로서의 쌀을 생산하
는데 그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고 지하수를 만
들어 내며 홍수를 방지하고 토양의 유실을 막으
며 기후를 조절하는 등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공익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제11회 '농민주일'을 기하
여 농업과 농민이 '공동선'의 이름으로 일방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촉구합니다.

교회는 지난 1994년 이래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를
통하여 전개해오고 있는 '생
명공동체' 운동에 격려를 보
내며 이 운동이 하느님의 사
랑 안에서 그 참된 의미를 지
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기를 바
랍니다. 농촌의 마을 공동체
와 도시의 본당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구성원
들, 학교와 단체와 기관과 병원에서도 이 운동
에 활발히 동참하여 생명 농산물을 나누며, 동
시에 생명공동체 운동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실천방식들을 개발해 나
가야 하겠습니다.

농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현실 속
에서도 농사일을 통하여 하느님 창조사업에 동
참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
하며 여러분이야말로 생명이신 하느님의 자녀
로서 가장 귀중한 몫의 하나를 수행하고 있음
을 의식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 7월 16일 제11회 농민주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요) 박민정(루바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 우 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2006년 여름

북유럽 10박 11일 / 동유럽 7박 8일
7월 30일 출발합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전 일 관 광
조선 (안토니오)
문의 : 063-288-6666

- 행복 한 발 걸음 -

슈즈뱅크

신발의 모던트 / 품질 · 가격 · 서비스 대만족
발길마다 행복으로
삼천하이츠 정문앞 홀마트 옆 / 221-2003
김병각(대건 안드레아) 김현나(베로니카)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마트 야외주차장 앞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형제적 사랑으로 제주관광 및 성지를
정성껏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시
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 · 호텔 예약 문의
☎(064)758-6476 H·P 011-697-6476

SEDEN(인후점)

부분도색 / 텐트시스템 / 파워관금
전문광택 / 코팅 / 범퍼제생
대표 : 강준철(바르나바) 전현진(올리안나)
위치 : 농고에서 안골중간 사거리
문의 : 247-2332, 018-415-3205

가톨릭적 대안교육 교사연수 (교수 · 학습방법연구)

일시 : 8월 17일(목)~18일(금) 1박 2일
장소 : 양업고등학교(043) 260-5076
내용 : 대한학교의 청의적 교수법선착순 40명
연수비용 : 4만원 / 8월1일까지 접수
신청 : ancientfutures@hanmail.net
담당교사 박상돈



교구장 일정

- 캐나다 한맘 성당 피정지도
7월 12일(수)~15일(토)
- Peterborougu 한인성당 방문 피정지도
7월 16일(주일)~19일(수)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성화 미사
7월 10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7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재무평의회
7월 12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익산하나회 미사
7월 16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 2006년 전주교구 가족캠프
8월 4일(금) 오후 7시~6일(주일) 오후 6시
주제 :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가족
대상 : 초(4~6학년), 중·고 자녀를 둔 가정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참가비 : 4인가족 기준 280,000원
신청마감 : 7월 8일(토)
접수 및 문의 : 285-0041(가정 사목)
입금 : 505-13-0312074 전북은행
예금주 : 천주교 유지재단
- 장애인복지협의회 하계 야외회
7월 23일(주일) 오전 8시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독산(홀피)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행사진행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가진 분들의 참여
를 기다립니다.
문의 : 011-672-6509 회장 : 임한복

2006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성소캠프

- ◆ 대학생 · 직장인 남성 일반부
7월 15일(토) 오후 2시~17일(월) 오후 2시
- ◆ 중·고등학교생(성소에 관심 있는자)
장소 : 경남산청 성심원 / 참가비 : 3만원
준비물 : 운동화, 여벌옷, 수영복, 세면도구,
필기도구, 목주
문의 : 010-7141-5549(이병우 신부)
02-6364-5500(http://www.ofm.or.kr)

교육 · 피정 · 연수

- EM 활용 교육
7월 11일(화) 오전 10시~오후 2시
전주대학교 EM연구동
대상 : 일반신자 / 문의 : 282-4204
- 목상 관상 기도 피정
7월 13일(목) 오후 2시~5시 우아동
문의 : 016-332-8789(가르멜동정녀회)
- 천호피정
7월 15일(토)~17일(월) 2박 3일
주제 :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족
지도 : 김영수 신부
문의 : 263-1004~5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강좌 3차
7월 11일, 18일 매주(화) 오전 10시
주제 :
1일-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
2일-부모 · 자녀관계에서의 청소년
3일-청소년과의 대화의 다리
강사 : 박윤자 / 장소 : 센터 3층
참가비 : 30,000원 / 마감 : 6월 20일
문의 : 285-0041(가정사목국)
- 가톨릭신학원 성서연수와 2학기 모집안내
과정 : 신약 1편
(신약입문, 공관, 사도 바로서기)
장소 : 전주본원 및 군산, 익산, 남원(신약 2편)
수강료 : 7만원
모집기간 : 9월 7일까지
문의 : 행정실 255-2678

새 가톨릭센터 신축현금 내역
(6/25~7/1)
최동일 5,000,000

기타

- 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전주시 금상동
(舊소리개재)에 성당을 신축 (2005년 8월
말착공) 하면서 납골당을 분양합니다.
납골시설요금 :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 교구청 관리국 286-0091
- 쌍백합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쌍백합'은 교구 안에서 형제 자매와 신앙
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기간지입니다.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쌍백합'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정기구독 안내(285-0041 홍보국)
- 1년 정기 구독료 : 10,000원
후원 계좌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 선녀머중합사회복지관 후원사업
주간보호 어르신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
주세요
후원계좌번호 : 선녀머중합사회복지관
전북은행 541-13-0311676
문의 : 232-0334
- 성가정의집 후원
농협 100060-56-087348 최영란
전북 559-21-0381862 최영란
- 은인을 기다립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나누리
청소년공부방은 3층 옥탑이라는 열악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무더운 여름
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시원한 여름(에어콘)을 선
물해주시길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 284-5290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좋은 영화 여섯개의 시선
7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왕성하게 활동중인 감독들이
만든 단편영화를 하나로 모은 작품.
-정재은, 박광수, 박진표, 임순례,
여균동, 박찬욱 감독

일 시 : 7월 12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12분
관람비 : 천원



복자 몬테소리
교사교육 연구소

http://club.catholic.or.kr/bokjamon
여름특강 '수학영어 총정리'
일시 : 7월 7일(월)~8월 10일(목)
문의 : 02-707-2282

이나시오 명상 캠프

일시 : 7월 15일~17일
장소 : 웅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이나시오 기도 방법을 배우고
싶은 미혼 남·녀
회비 : 학생(4만원), 일반(5만원)
문의 : 011-420-0268 예수수도회

사랑을 얻기위한 명상
(suscipe) 떼제 기도모임

일시 : 매월 둘째주(수) 오후 7시 30분(7월 12일)
장소 : 익산 성모병원내 수녀원
대상 : 떼제 노래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미혼 남·녀
문의 : 예수수도회 011-420-0268

살레시오회 성소피정

대상 : 고3, 일반(입회 대상자)
일시 : 7월 15일(토)~7월 17일(월)
장소 : 살레시오 내리 캠프장
신청 : 062-512-0332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선부: 김익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회장: 김기장

- ◎ 여름신앙학교를 위한 후원금 접수(사무실)
- ◎ 여름신앙학교: 초등부 - 21~22일 (장수사과시협포), 중고등부 - 24~26일(해월리)
- 1. 오늘: 성모회
- 2. 금주 모임: ① 마리아세례회 13일(목) 미사 후 ② 사도모임 13일(목) 미사 후 ③ 제대회 14일(금) 후2시
- 3. 초등부여름신앙학교를 위한 9일기도: 12일(수)~20일(목) 미사 전
- 4. 제2차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677,808단
- 5. 성전신축을 위한 가정 고리기도: 우종철 요아킴, 최윤정 안나 가정 / 양재는 다니엘, 오애순 다니엘라 가정
- 6. 성전신축 헌금: 익명 300만, 김해복 200만, 조종남 50만, 정갑수 462,600원, 2차 헌금 30만, 유백순 7만
- 7. 차주: ① 대진회 ② 안나회 ③ 아가페회
- 지난주 봉헌금: 854,500원 ■ 교무금: 827,000원

무주

주임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회장: 김윤희

- ◎ 성서읽기: 7월 둘째주간 - 에스기1장~10장
- ◎ 본당50주년 목주기도 봉헌: 금주35,550단 제206,954단
- ◎ 시 베네딕타 수녀님의 영명을 축하 드립니다
영혼간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 관광객 미사: 7월15일-8월20일(구천동) 토-오후7시30분, 주일-오후5시
- ◎ 7월15일 토 특전미사: 오후5시(평토요일은7시30분)
- 1. 모임: ① 반장모임, 율프레야-교중미사후 ② 성모회-7월14일(금)10시 미사후
- 2. 금주전례: 해설-박영주, 독서-강원석, 임순옥 봉헌-이승희, 전이선, 기도-강미애, 함은화
- 3. 차주전례: 해설-김영애, 독서-김원석, 이명숙 봉헌-김동숙, 김순옥, 기도-강원석, 박정분
- 지난주 봉헌금: 654,600원 ■ 교무금: 1,516,000원

순창

주임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선부: 송훈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회장: 정운열
홈페이지: www.sccatholic.net

-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 1. 금주모임: 안나회-미사후
- 2. 차주모임: 테레사회-미사후
- 3. 금주전례: 교중해설-송준신, 독서-신은희 이승택
- 4. 차주전례: 교중해설-신민희, 독서-황영순 노상래
- 5. 청 소: 금주-사도들의 모후Pr., 차주-자모이신 마리아Pr.
- 6. 감사헌금: 조기방
- 7. 차량봉사: 금주-4조 차주-5조(안전운행)
- 지난주 봉헌금: 889,000원 ■ 교무금: 2,038,000원
- 2차헌금: 340,100원

쌍교동

주임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선부: 박성팔
유지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서목회장: 양정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한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코린 2서 12,10).
- ◎ 여름신앙학교: 22일(토) ~ 23일(일), 초·중·고등부학생, 장소: 쌍치공소 참가비 - 10,000원,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1. 모임안내: ① 율프레야 - 9일(일) 교중미사 후 ② 청년회 - 9일(일) 후 5시 ③ 프란치스코 재속회 - 9일(일) 후 2시 ④ 제대회 - 11일(화) 전 10시30분 ⑤ 요한회 - 14일(금) 후 7시
- 2. 예비자 교리: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많은 인도바랍니다.
- 3. 함께하는 여정 교육: 매주 수요일 오전10시부터, 각 구역(반)장, 제대회원, 성심부녀회원등 여성 제단체회원.
- 4. 성경 통독: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준비물 - 성경책과 필기도구.
- 5. 선교를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178,220단
- 6.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총 신인액: 153,275,000원, 납입액 - 86,554,000원
- 지난주 봉헌금: 1,787,260원 ■ 교무금: 1,543,000원

진안

주임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선부: 김태훈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회장: 김길용
인들공소: 433-3177 유지원: 433-2293

- ◎ 성경은 삶에 있어서 귀중한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오늘은 105년사 편찬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 후원 받습니다.
- 1. 모 임: ① 9일(오늘) 이명서 베드로회, ② 11일(화) 구역반장모임, ③ 12일(수) 성모회, 공소소공동체모임, ④ 15일(토) 만나회
- 2. 신부님 성지순례: 12일부터 22일까지
- 3. 손님신부님 미사: 15일(토), 16일(일), 22일(토)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수

주임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선부: 서광석
F A X: 642-6319 서목회장: 변홍섭

-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167,270단
- 2. 성서를 통독합니다.
- 3.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4. 병자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5. 금주전례: 해설 - 문판이, 독서 - 변홍섭, 이영자
차량봉사: 김옥기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6. 차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전찬열, 김순자
차량봉사: 전찬열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선부: 박종충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회장: 신태근

- 1. 공소미사: 강덕 - 오늘 후 7시 30분, 삼길 - 차주 후 7시
- 2.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기금모금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사무실
- 3. 주일학교 문화탐방 및 성지순례: 참가할 학생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일시 - 7월 26일(수) ~ 29일까지
대상 - 초등부 3학년부터 고등부까지 주일학교에 참석한 학생
(*주일학교 학생 가족 환영)
회비 - 학생 2만원(가족은 문의바람) *일정은 게시판 참조
신청 마감 - 7월 16일(주일)
- 4. 선지회 간부임명: 회장 - 노재진(사도요한), 부회장 - 박주현(요셉)
총무 - 진홍영(바오로)
- 5. 구역모임 ① 로사, 테레사 - 12일(수) 후 8시 ② 아가다 - 13일(목) 전 10시 ③ 요셉파나 - 13일(목) 전 11시
- 6. 차주전례: 해설 - 이재복, 독서 - 노재진 부부, 봉헌 - 김경중 부부
- 지난주 봉헌금: 827,550원 ■ 교무금: 825,000원 ■ 2차헌금: 299,130원

장계

주임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선부: 정승연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서목회장: 이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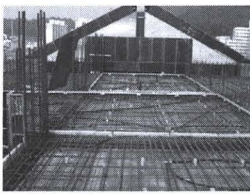
- ◎ 오늘은 조신신자 초대주일
- 1. 애령봉사회: 오늘(9일) 주일미사 후 교육관
- 2. 성모회: 오늘(9일) 주일미사 후 성당
- 3. 본당 율프레야: 13일(목) 저녁미사 후 교육관에서
- 4. 반모임: 14일(금) 저녁 중동, 북동, 월강, 복실 구역
- 5. 첫영성체교리: 25일부터 화, 수, 목 오전 9시-10시 반
- 6. 다음 주일: 성심부녀회
- 7. 다음주일 전례 봉사: 유영숙, 박용주, 주점숙, 이봉희, 정교문
- 8. 가톨릭센터 신축 성금: 이영하, 고성기, 박인서, 강신원, 엄정선, 이명
- 9. 감사헌금: 김정숙 5만
- 10. 교황주일 이차헌금: 201,2150원
- 지난주 봉헌금: 644,160원 ■ 교무금: 185,000원

장수

주임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선부: 정진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회장: 박동표

- ◎ 초중교 여름신앙학교 안내(교회 안에서 배우는 문화유적답사)
 - 일시: 7월 28일(금) ○ 장소: 문경세계 및 연풍성지
 - 신청: 수녀님 ○ 참가비: 5,000원
- 1. 봉성체: 7월 14일(금) - 후 2시
- 2. 금주참석공소: 반안 차주참석공소: 수분
- 3. 금주공소미사: 덕산 차주공소미사: 상동
- 4. 금주전례: 박덕순(루시아) 차주: 김원순(루실라)
- 5. 금주독서: 박동표(요셉), 이옥주(누갈다)
차주독서: 장재주(요한), 이형순(사비나)
- 6. 금주봉헌: 최봉철(요셉), 권봉조(리디아)
차주봉헌: 나명조(바오로), 신지원(루시아)
- 7. 차량봉사자: 금주 - 이지수(김대건안드레아) 차주 - 박충기(스테파노)
- 지난주 봉헌금: 440,500원 ■ 교무금: 220,000원

- 4. 14일(금): 유치원 캠프
- 5. 105년사 후원: 정영자 헤레나 자매님
- 6. 금주봉헌: 배정기 리노 부부
차주봉헌: 강호상 방지희 부부
- 7. 성당청소: 15(토) 성조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833,000원 ■ 교무금: 1,025,000원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7월 1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6,173,367	41.16%
사제단	1,000,000	907,303	90.73%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489,960	32.66%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7,792,438	43.29%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옥봉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임실, 고창, 진안, 둔율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이상 납부한 본당 : 고산, 인후동, 황등, 서학동, 장계, 여산, 무주
- 신축기금 배정액 50%이상 납부한 본당 : 금암, 중앙, 오룡동, 월명동, 나바위, 용안, 신흥, 신태인, 복자, 대야, 나운 2동, 함열, 시기동, 수류, 팔마, 우전, 조촌동, 덕진

상황중심교육 안내

+ 우리가 희망입니다.

청소년교육국에서는 사회사목국과 공동으로 청소년, 아동교육의 전문가인 독일 카리타스회 소속 쿠너(Kuner) 신부를 초빙하여 교회 내 청소년 교육 및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리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수법 함양 및 청소년·아동 교육의 비전 제시를 위한 '상황중심 교육' 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회 내 청소년 교육에 중사하는 교리교사 및 영·유아 보육시설/기관 종사자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1.일시 : 2006년 7월 16일(주일) 오전 9시~오후 5시
- 2.장소 : 해월리 피정의집
- 3.강사 : 쿠너(Kuner)신부(독일 카리타스회, 30년간 청소년·아동교육 담당)
- 4.대상 : 1)본당 초·중·고 교리교사
2)교구내 어린이집, 유치원 담당 수녀 및 교사
3)청소년, 아동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 5.교육내용 : 1)어린이와 하느님
-어린이가 생각하는 하느님 상
-어린이에게 전해 주어야하는 하느님 상
-어떻게 어린이에게 하느님 상을 전해줄 수 있을까?
- 6.참가비 : 20,000원
- 7.버스운행 : 오전 8시 30분 전주시청 민원실앞 출발
- 8.신청 : 2006년 7월 12일(수)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 청소년교육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283-2456 / 참가비 입금계좌 -전북은행 520-13-0320299 예금주 : 주묵성)

